

KIA, 홈런 1위 SK 홈런 4개로 '스윙'

'일요일의 강자' 최형우 투런 포함 4타점 대폭발

양현종 7승 단독 선두·임창용 세이브...8대 3승리



'일요일의 강자' 최형우가 '선데이 타이거즈'의 스윙에 마침표를 찍었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8-3으로 이기면서 시즌 3번째 스윙승을 장식했다.

화력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이번 시리즈에서 '타율 1위' KIA는 '홈런 1위'의 SK를 상대로 홈런 공세를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왔다. SK가 3연전 동안 기록한 16개의 안타 중 10개를 홈런으로 기록한 양현종이 홈런을 7개 기록하며 홈런왕에 올랐다.

하지만 KIA는 18일 나온 최정민의 프로 데뷔 홈런을 포함 4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3승을 챙겼다.

KIA 에이스 양현종과 SK 로맥이 맞붙은 20일, KIA가 선취점을 가져왔다. 1회말 포수 앞 내야안타로 출루한 최정민이 안치홍의 좌측 2루타로 홈을 밟았다.

3회초 양현종이 선두타자 김성현을 좌전안타로 내보낸 뒤 이성우의 희생번트에 이은 노수광이 적시타로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최형우가 움직였다. 이명기의 내야안타와 안치홍의 좌전안타를 묶어 만든 3회말 2사 1·2루에서 최형우가 우중간을 가르면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잇단 수비 실수로 KIA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4회초 SK 로맥의 타구가 3루수를 맞고 좌측으로 흘렀다. 양현종이 정의운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유격수 김선빈이 병살타성 타구를 놓치면서 1사 1·2루가 됐다. 나주환의 중전안타로 베이스가 가득 찼고, 김성현의 타구가 3루수와 유격수를 지나 좌전안타가 되면서 승부는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흐름을 내줄 수 있던 상황에서 KIA가 '홈런 군단'을 상대로 '한방'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4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정성훈이 켈리의 144km짜리 직구를 받아 좌중월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5회말에는 최형우가 이날 세 번째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선두타자 안치홍이 세타석 모두 안타로 출루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최형우가 켈리의 147km 직구를 잡아당겨 6-3을 만드는 투런을 기록했다.

7-3으로 앞선 8회에는 승부가 쟁기를 막는 홈런이 터져 나왔다. 지난 18일 박종훈을 상대로 프로 데뷔 홈런을 터뜨렸던 최정민이 다시 한번 우중간으로 공을 보내면서 그라운드를 돌았다.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타선의 지원 속에 5이닝 6피안타 1볼넷 5탈삼진 3실점(2자책)으로 7승에 선착하며 린드블럼을 따돌리고 다승 단독 1위에 올랐다. 김윤동은 3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내주

며 5번째 홀드에 성공했다. '최고참' 임창용은 18일에 이어 20일에도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으며 3연승을 완성했다.

최형우는 3안타 행진 속에 일요일 경기 타율을 0.531(32타수 17안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7개의 홈런 중 4개를 일요일에 터트리면서 '일요일 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팀은 일요일 전적을 6승 2패(승률 0.750)로 만들면서 '선데이 타이거즈'의 모습을 보여줬다.

최형우는 "감이 많이 좋은 것은 아닌데 컨디션 조절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전날 감독님께서 휴식을 주시기도 했고, 오늘은 지명 타자로 나오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며 "일요일에 내가 느낄 정도로 성적이 좋다. 하지만 쉬고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못 이어서 아쉽다. 화요일부터 좋아야 하는데 아쉽다"고 웃었다.

또 "이제 팀이 치고 올라가야 한다. 그동안 팀이 많이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만큼은 하지 못했다. 올라 가야 할 상황이다"며 "홈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타점에 대한 욕심은 난다. 그동안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다. 타점에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과 20일 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이 가득 차면서 이틀 연속 매진이 기록됐다. 올 시즌 5번째 매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KIA 4번타자 최형우가 5회말 무사 2루 때 우월 투런홈런을 날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덕아웃 T 특특

달라진 헥터 "공격적으로 변해야 산다" 외야수비 최정민 "앞뒤좌우 다 어려워"

▲너무 쉽게 잡더라고요 = '옛 동료'의 호수비가 아쉬웠던 노수광이다. 주말 3연전에서 노수광은 SK의 톱타자 역할을 맡았다. 18일 임기영에게 삼진 두 개를 당하는 등 4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노수광은 19일에도 4타수 무안타로 마감했다. 톱타자 역할을 하지 못했던 노수광은 20일 경기 전에 "잘 맞았는데"라면서 전날 첫 타석을 이야기했다. 이날 노수광은 첫 타석에서 안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안치홍의 호수비에 막혀 2루수 땅볼로 돌아서야 했다. 90년 생 동갑내기 친구 안치홍에 막힌 노수광은 "어려운 타구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너무 쉽게 잡더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노수광은 20일에는 두 번째 타석에서 깨끗한 중전안타로 1타점을 올렸다.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했다 = 헥터가 달라진 모습으로 19일 경기에서 시즌 첫 완투승을 기록했다. KBO리그에서 거둔 5번째 완투승. 9회를 1실점으로 막은 헥터는 SK 좌완 김광현과의 맞대결에서 승자가 됐다. 경기가 끝난 뒤 헥터는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아서 새로운 것을 시

도하려 했다"며 공격적이고 빠른 피칭에 대해 언급했다. 김기태 감독도 헥터의 변화에 좋은 점수를 줬다. 20일 "집중력 가지고 하는 게 헥터의 모습이다"며 전날 피칭에 대해 언급한 김 감독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좋은 모습이다"고 말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유재신은 지난 19일 SK와의 홈경기 수훈 선수였다. 0-1로 뒤진 3회 1사 3루에서 김광현과 10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동점 적시타를 터트리는 등 멀티히트 활약을 하며 2-1 승리의 주역이 됐다. 시즌 초반 주로 대수비·대주자로 뛰며 두 타석에 1볼넷 1삼진만 기록했던 유재신은 지난 4월 29일 1군 복귀 후 10타수 7안타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안치홍의 끝내기 안타가 나왔던 지난 10일 두산전 연장 11회 멋진 슬라이딩 캐치를 선보이는 등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유재신은 "전날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면서도 "(좋은)수비 장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하지

만 이날 경기에서 유재신은 아쉬운 부상을 당했다. 2회초 정의운의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처리하던 유재신은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됐다. 유재신은 검진 결과 왼쪽 햄스트링 부분과열 진단을 받았다.

▲앞뒤좌우 다 어려워요 = 아직은 외야수라는 이름이 어려운 최정민. 18일 팀의 2번 타자이자 중견수를 맡으며 최정민은 처음으로 외야수로 선발 출전을 했다. 이후 20일까지 세 경기 연속 중견수로 선발 출전을 한 최정민은 프로 데뷔 홈런 포함 2개의 홈런포를 터트리면서 맹활약했다. SK에서 KIA로 이적한 지난해 처음 외야수 수비를 해봤던 최정민은 올 시즌에도 내야수 자원으로 분류됐지만 팀 사정상 외야로 나가고 있다. 최정민은 "앞뒤좌우 모든 공이 다 어렵다(웃음). 포구 하는 동작도 어렵다. 내야수가 공을 잡는 것처럼 잡는다"며 "발로 공을 잡고 있기는 하다. 다행히 어려운 공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꿈나무들에게 야구용품 지급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나훈)가 최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지역 야구 육성 학교에 3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증정했다. 협회는 2013년부터 매년 용품 기증행사를 갖고 지역 야구 꿈나무들에게 약 2억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급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박인비, 20번의 도전만에 KLPGA 첫 우승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박인비(30)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회 우승이라는 오랜 숙제를 마침내 풀었다.

박인비는 20일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아림(23)을 1홀차로 제쳤다.

이로써 박인비는 생애 첫 KLPGA투어 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무대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19승을 올렸고 일본에서 4승,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1승 등 해외에서는 모두 24개의 우승컵을 모은 박인비는 그동안 KLPGA투어 대회 우승만 없었다.

2008년부터 19차례 KLPGA투어 무대에 도전했지만 준우승만 6차례 차지했을 뿐이다.

박인비는 또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저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도 털어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준결승에서 최은우(23)를 3홀차로 꺾고 결승에 오른 박인비는 국내 최장타자 김아림을 맞아 18홀까지 힘겨운 대결을 벌였다.

'일을 게 없다'며 패기로 무장한 김아림은 장타뿐 아니라 날카로운 아이언샷



박인비(30)가 20일 오후 강원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 퍼트까지 결들여 박인비에 팽팽하게 맞섰다.

박인비는 13번홀(파3)에서야 4m 버디를 잡아내며 승부의 물갈이를 닦았다.

15번홀(파4)에서 김아림의 3퍼트 보기에 2홀차로 앞서나가 수월하게 승리를 거둬 놓았던 박인비는 16번홀(파3)에서 위기를 맞았다.

그린을 놓쳤고 3m 파퍼트를 넣지 못해 1홀차로 쫓겼지만, 17번홀(파4)과 18번

홀(파5)을 잇따라 파로 막아내며 김아림의 추격을 뿌리쳤다.

박인비는 우승상금 1억7천500만원과 3천500만원 짜리 굴삭기를 부상으로 받았다.

2016년 데뷔해 우승은 없지만 남다른 장타력으로 잠재력을 인정받은 김아림은 세계랭킹 1위 박인비를 맞아 주눅 들지 않고 선전을 펼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